

뉴스읽기	
문·이과 경계가 사라지는 이유?	2면
진로스쿨	
한국외대 외교통상스쿨	3면
대학	
신한대 융합교육 프로그램	4면
공동구매	
갤럭시 노트 10.1 전용 케이스	10면



7년째 힐러리 의상 맡는 디자이너 수재나 정 포리스트

“꿈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요”

한인 디자이너 수재나 정 포리스트 씨를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에 있는 그의 부티크 '수재나 베벌리힐스'에서 만났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부티크 전경



미국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힐러리 로덤 클린턴 전 국무장관, 포리스트 씨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있다

미국에서 유력한 다음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로덤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그는 언제나 짙은 색 경장을 입는 미국 여성정치인들과는 달리 완벽하게 몸에 맞으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다양한 색깔의 바지 경장을 입는다. '힐러리 룩'이라 불리는 이런 멋진 스타일은 한국인 여성 디자이너의 손에서 탄생했다. 수재나 정 포리스트 씨는 2007년부터 힐러리 전 장관의 의상을 담당해온 디자이너.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에서 최고급 맞춤경장 부티크(의상실)를 운영한다.

힐러리 전 장관이 '글로벌 리더'를 넘어 '패션 리더'로 불리도록 만든 디자이너 포리스트 씨를 최근 베벌리힐스에 있는 그의 부티크에서 만났다.

가난한 유학생이 고급 부티크 열기까지

'수재나 베벌리힐스' 포리스트 씨가 운영하는 최고급 부티크이자 브랜드의 이름이다.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맞춤경장은 한 벌에 4000~6000달러(약 420만~630만 원)에 달한다. 고급스럽고도 편안하며 매력적인 맞춤복으로 알려져 미국 여성 최고경영자(CEO)들과 억만장자의 부인들이 단골로 찾고 있다.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성공하게 됐을까?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난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어느 날 우연히 외국잡지에 나온 그림을 본 뒤로 막연하게 '예술가'를 꿈꾸게 됐다.

1969년 디자이너를 꿈꾸며 무작정 미국으로 간 그는 정말 힘든 생활을 했다. 집도 얻지 못해 차에서 쪽잠을 자며 뉴욕에서 패션스쿨을 마쳤고, 우여곡절 끝에 1976년 베벌리힐스에 지금의 시작점인 작은 부티크를 열었다.

“정말 힘든 순간에도 제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자였어요. 저는 제가 결국 성공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포리스트 씨)

힐러리와는 '이웃집 친구' 같은 사이

포리스트 씨가 1980년대에 내놓은 브랜드는 TV와 영화의 의상부문에서 명성이 높았다. 1987년에는 '미국 방송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에서 드라마시리즈부문 의상디자인상을 받는 영광을 누린다.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류층 여성을 위한 의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가 힐러리 전 장관을 처음 만난 것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힐러리가 한창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떠올랐던 상원의원 시절이었다.

“론 버클(미국 유통업계의 재벌)의 집에서 열린 기금 마련 행사에 초대돼 참석한 자리였어요. 개인적으로 만나 의상을 부탁하고 싶다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지요.”(포리스트 씨)

그때 맺어진 인연을 시작으로 포리스트 씨는 힐러리 전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는 거의 모든 옷을 디자인해왔다. 힐러리 전 장관의 공식 일정을 확인한 후 그가 방문할 곳의 기후와 문화, 행사 분위기나 참석자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판단해 옷을 디자인한다. 지난 2009년 힐러리 전 장관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입었던 붉



은색 경장도 그의 작품이다.

“완벽한 옷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체형뿐만 아니라 그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힐러리 전 장관과 종종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고 지금은 '이웃집 친구'처럼 친밀한 사이가 됐습니다.”(포리스트 씨)

리더 꿈꾸는 젊은이를 위해

포리스트 씨는 지금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젊은 여성들도 '수재나 베벌리힐스'를 입을 수 있도록 가격 부담이 낮은 기성복 라인을 출시할 예정. 이 브랜드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내년엔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다.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연 대회를 열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전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그는 한국의 고교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잊지 않았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요.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과정조차도 행복하답니다. 당신의 꿈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꼭 현실로 이뤄내세요.”(포리스트 씨)

▶ 글 사진 베벌리힐스=정민아 기자 mina@donga.com